

## 신입사원이 그리도 좋더냐?

본인은 TV를 잘 안보는 편이다. 첫 번째로 TV만 켜다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뉘 놓고 있는 내가 싫어서이고, 두 번째로 TV가 있는 곳에서는 대화나 작업 등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는 영화를 선호하며, 워낙 이슈가 되는 방송들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체험한다.



5월4일 저녁 친구에게 영화 보자고 데이트(?)신청을 했더랬다.

'신입사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해야만 했다. —.ㅠ 그날 집에 와서  
신입사원 1회부터 13회까지 연짱으로 봤다. 졸x리 잤있더라고 —.—;;  
완전히 만화를 드라마로 옮겨놓은 듯 하더군, 현실적 가족상과, 아이너리한  
조연들, 연기도 그럭저럭들 잘하고 극중인물 강호(에릭)라는 녀석은  
자연스러운 연기에 묘한 매력을 풍기는 녀석이더군, 예전에는  
가수였다면서? 난 처음 보는 녀석이라서... ( ! ) '서현아'는 옛 애인과  
닮은꼴이어서 볼 때마다 삼천포였다. 이러니~ 사람들이 미치지...

어쨌든 요즘 드라마는 많이 다르구나, 그래도 찌질이 사랑얘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나 보다. 스토리를 급속도로 진행하다가 최근 몇몇 회에서  
질질 끄는 것을 보니 회수를 늘리려는 수작 같기도 하고, 뭐 드라마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도 든다.

덧. 키스 한 번 했다고 시청률이 달라지는 건 또 뭐야 —.—;;